

Zerwick, M. & Grosvenor, M., 1981. *A Grammatical Analysis of the Greek New Testament*. Rome : biblical Institute Press.

선별된 詩 4 편(1, 2, 76, 107)에 대한 연구

박 종 칠*

서 론

일찌기 칼빈은 시편을 “영혼의 해부학”이라고 하였다. 구속받은 성도들의 모든 영적 상태의 호소가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실 시편에는 구약의 큰 주제들이 기도의 형식으로 요약되듯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천지창조에서부터 출애굽까지, 가나안 정복에서 바벨론에서 귀환까지의 역사며, 이것들이 멀리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 왕국이 성숙해지는 일련의 구원사의 중요한 사건들이 요약되듯이 반복되고 있다. 시편은 과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대해 여기에 동참된 성도들이 감사해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맥박이 뛰고 있다. 그러므로 시편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과 이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병합 교차되어 나오므로 해서 우리 죄인들에게 한없는 영적 매력을 주는 책이다. 여기에는 영광과 뇌성이 있는가 하면 환희와 호소가 있는 것이다.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극작품을 우리는 자세히 연구해서 그 노래의 의미를 아는것이 중요하다. 이번에는 단지 4 편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기로 하였다.

복된 자란 어떤 자입니까? (시 1 편)

I.

오늘 본문은 복된자를 가리켜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고 비유합니다. 그에 비해서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유는 예레미야 17 : 8 에도 나타나는데 복된자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히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고 합니다. 반대로 저주 받은자는 사막의 떨기나무, 건건한 땅의 잡초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렇

* 조교수, 구약학전공

게 보니 시편 일편이나 예레미야서나 한결같이 번창하는 나무의 실례 비유를 들어 축복과 저주, 행복과 불행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두 저자들이 이런 비유들을 같이 사용했을까? 우연히 되어진 일이겠습니까?

고대 근동이나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비유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예컨대 왕들을 힘센 백향목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겔17, 31장등) 그리고보니 이 두 본문은 통용되는 비유를 들어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를 서로 비교 대조해 보면 복된자의 뜻을 이해하는데 적지 않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두 본문을 얼른 살펴보면 상호보완적이 돼서 성경이해에 도움이 보이기에는 커녕 더 어렵게 보아지는듯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일편을 율법에 관계되는 사람이 복스럽다고 하는것 같고 예레미야서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 복되다고 하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전혀 다른 주제인것 같이 보여집니다. 여러면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율법사상, 율법신뢰, 율법학자 등 바리새인처럼 영어의 law의 문자나 자기 경건에 치우치는 인간인것 같고 다른편 곧 예레미야서는 “사람을 신뢰하고 육체를 자기 권력으로 삼는 자는 저주를 받을 썩어다”고 하는것 보면 램17장은 분명히 자신의 의와 기만을 결단코 반대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시1편을 신약의 바리새인에 관계되는 것 같고 램17장은 하나님 품안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세리에 관계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시1편은 차가운 정통주의 아니면 고고한 청교도주의처럼 보여지는 반면 예레미야 17장은 정숙한 신뢰의 경건주의 같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II.

그럼 이렇게 서로 다르게 말하는 듯한 이 문제가 어떻게 조화될수 있을것 입니까? 분명코 성령님께서서는 이 두 기자가 같은 비유를 들어서 축복과 저주를 말함에 같은 의도를 갖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1편의 “율법”과 램17장의 “신뢰”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 양자는 서로 대립적인가 아닌가의 문제를 던져 줍니다. 신뢰는 시편의 율법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말 율법은 히브리어로는 “토라”인데 그 여자적(如子的) 의미는 다양하다. 성경 레위기나 신명기에서 자주 나오는 말로 그 용법도 다양하거니와 유대인들도 그 의미를 함축적인 말로 사용합니다. 그런중에 토라는 교육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아버가 자녀들에게, 선생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야한다, 해서는 안된다는 식의 바른길로 지시하는 내용인것입니다.

가정 역사를 말하므로 생생한 교훈을 가르쳐 주는 그런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행하신 자신의 행적 업적을 말하는 역사적인 어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행적, 역사기술을 듣는 가운데 율법을 듣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율법과 말씀을 밀접한 관계를 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신30:14에 말씀이 네게 가깝다고 할때 바로 모세가 선포한 그 율법이 가깝다고 한것입니다. 시119편에서도 “법, 증

거, 도, 법도, 율례, 계명, 말씀, 규례”란 말이 서로 교대로 사용되어 율례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1편에서 찬양하고 복되다고 하는 사람은 율법의 문자를 먹고 지내는 종류 의 사람을 의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관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때에는 그것을 행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시편1편의 율법을 읽고 연구할때 거기서 우리는 그 율법이 지시하는 주님 자신을 듣고 주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토라 전후를 해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듣고 그의 말씀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응답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요컨대 한마디로 말하면 토라가 전부 지시하는 것은 “그를 의지하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램17장과 같지 않다고 하겠습니까?

III.

여러분 십계명의 근본정신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율법의 전주곡이라고 하는 제일계명의 근본정신과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개혁주의 고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 104문은 “제일계명에 요구된 의무는 하나님께서 홀로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임을 알고 인정하며 따라서 그만을 생각하고, 명상하고, 기억하고, 높이고, 공경하고, 경배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경외함으로 그에게만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또 그를 믿고 의지하고 바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그를 불러 모든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전인격적으로 그에게 모두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범사에 조심하고 만일 무슨 일에든지 그를 노엽게 하면 슬퍼하며 그와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4주일 문94에서 제일계명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는가에 대한 답으로서“……나는 유일하신 참하나님만을 올바르게 인정하고 그에게만 의지하며 결손과 인내로 모든 선을 받기를 원하며 나의 온 마음을 가지고 그를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십계명이 지시하는 것도 그만을 신뢰하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IV.

바로 이 옷점적인 진리를 예레미야 17장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1편과 램17장은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적으로 같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본문은 그야말로 밀접히 관련되어 같은 비유를 들어서 같은 내용을 말해줍니다.

1) 그 첫째가 성장하는 나무 비유를 거듭 거듭 말함으로써 여호와 신뢰밖에 다른것이 없다는 진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에스겔17장과 31장이나 이사야30장은 다 식목 비유를 들어 하나님 신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장들에서 선지자

들은 유다 왕들이나 세상군왕들을 준수한 나무에 비유하는데 이것은 이들이 다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지고 꺾어지며, 높아졌다가 낮아지는 운명을 말해줍니다. 이들의 운명이 이렇게 저렇게 결정되는 데는 저들의 처지가 여호와께 의존되어 있음을 인정하는나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 표준에 따라 유대 마지막 왕도 심판을 받았고 이 표준에 따라 세상군주도 스스로 높은채 하다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에스겔31 : 10-14에서는 교만한 나무가지상을 말하면서 인간관계나 세상 정치에나를 막론하고 절대적인 것은 인간 자기 권력이 아니라 여호와 신뢰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고 하는 나무가 꺾어지는 것은 "...물대임을 받는 능한 자로 스스로 높아서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겔31 : 14) 에스겔 선지가 바벨론의 세상권력에 대해서 말한 이 진리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스스로 높은 체하는 유다왕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진리가 시편일편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율법을 연구한다 합시고 율법의 명령배후에 있는 여호와 신뢰를 포기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설려는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나무 자신은 힘이없고 그 힘은 심기운 물에 있습니다. 물줄기를 따라 뿌리는 뻗어갑니다. 그런데 율법이 지시하는 그 길을 외면하고 스스로 달리는 군주는 날아가는 비행기를 따라 잡으려고 하는것과 같이 축복은 고사하고 하늘에 계신 자가 허허하고 비웃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어찌 일어서겠습니까?

시편 1 편은 개인에 대해 말하고 시편 2 편은 단체(군왕을)에 대해 말합니다. 1 장의 초두와 2 장의 말미의 말이 "복되도다"라는 말인데 그것은 곧 개인이나 단체를 막론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무 비유를 거듭 말함으로써 본문은 "신뢰"가 유일한 척도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 시편 일편이야말로 개혁교회의 Sola fide의 핵심적 설교장인 것입니다.

2) 둘째는 성경본문들에서 "복되도다"(아שרה)는 말이 거듭 나타나는데 아럴때마다 "신뢰"가 결정적인 표준이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런 본문들을 살펴보기 앞서 우선 시편 일편의 주제와 그 말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복되도다"하는 말의 강조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보통 시편 일편의 주제에 대해서 표제를 붙이기를 "두가지 길"(Two ways)로 보고 있는데 사실 6 절은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말하고 있으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 두 길의 주제가 긴밀히 서로 연결되어 하나로 수렴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의미의 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복되도다"라고 할때 이런 이런 사람이 복되도다고 하였지 두 길에 복되도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악인에 대한 말이 있지만 히브리 본문에는 한 문단 안에 복된 사람을 정의하면서 서술하다 보니까 즉 악인에 가담 안하고 여호와의 토라를 좋아하는 자가 복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을 어떤 새로운 문단으로 별도로 서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복된자는 외골수, 분리되지 않는, 복잡하지 않는 생 곧 여호와 율법의 길 여호와 신뢰

로 나가고 악인들의 길에 가담하지 않는 자가 복된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 1 편은 한 외골수 노선, 곧 지복의 노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여호와와는 의인의 길만 알고 악인의 길은 망하도록 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신뢰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기억합니다.

이런 복된 노선이기에 하나님은 성경 여러곳에 거듭 거듭 신뢰를 강조합니다. 우선 시편에서 보면 생사의 기로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되도다고 합니다. (시40 : 3, 4, 84 : 12) 또 세상정치 소용돌이 속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결론은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시편 2 : 12, 34 : 18)

이외에도 사죄의 은총을 받은자, 여호와 경외하는 자, 그의 법을 묵상하는자, 그의 증거를 지키는 자, 그의 법을 행하는 자가 다 복이 있다 합니다. (32 : 12, 33 : 11, 144 : 15, 1 : 1, 106 : 3, 112 : 1, 119 : 1, 2, 128 : 1, 2)

이점에 있어서 잠언의 "토라"는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솔로몬 시대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이 국제화되고 다원화 되어 국제 무대화되었던 소위 개화시대였습니다. 당시는 어떻게든지 자유로이 말할수 있고 구상할 수 있는 개방시대였습니다. 솔로몬 자신은 세상의 권력구조를 경험한 사람 이었습니다. 이러한 그가 시편 1 편과 예레미야서가 말하는 복된자의 의미대로 토라와 연관시킵니다. 29 : 18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사회생활의 중심부에 묵시가(선지자의 말씀)없으면 혼란이 오겠는데 여기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한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1 편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레미야 예언의 방식대로 여호와 신뢰가 복되도다고 합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종을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잠16 : 20) 잠언서는 또한 여호와 의뢰와 자신 의뢰를 대조시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 28 : 25 *

- a.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 b.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 28 : 26 *

- a. 자기의 마음을 믿는자는 미련한자요
- b.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자니라.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울무에 걸리게 되거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잠29 : 26-26)고 잠언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V.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편 1 편의 율법 때문에 지복스럽게 되는 길은 "신뢰"를 척도삼아 화복을 외쳤던 선지자의 노선이요, 온 모세 율법이 지향하는 노선이었습니다. 이

길이 개혁자들이 생명을 걸고 살아왔던 노선이었습니니다. 이 진리 노선은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해도 불변적인 노선입니다. 성경 이 부분 저 부분은 전진하는 역사와 함께 되조되어져야할 교훈이 아닙니다. 급격한 사회변형과 혁명적인 개화시대를 살았던 솔로몬도 온갖것을 다 경험하고는 하는 말이 어느 사회의 한 aspect에 관심하지 않았읍니다. 오히려 “무릇 지킬만한 것 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4 : 23)고 하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하였읍니다.

이 길이 바로 신뢰의 노선이었읍니다. 솔로몬은 전대의 노선을 새대의 혼돈속에서도 더욱 확신시켜 주었읍니다. 이 신뢰노선 옆에는 그 어떤것도 있을 수 없읍니다. 이 길을 따라가고 밟기 위해 우리 신학도는 들어왔고 배웁니다.

이 길이 교회가 사는 율법의 길입니다. 이 신뢰의 노선이 우리나라 국회개원 기도서에 나타난 노선입니다. 이 여호와 신뢰 노선이 오늘날 정치 당국자들이나 온 국민이 밟아야 할 방향입니다. 이 율법이 지시하는 신뢰의 노선에 돌아오도록 우리 신학도는 배우고 확신해서, 온 한국, 온 아시아 아니 온 세계에 전해 야 겠읍니다. 복된자란 이 율법이 지시하는 자로써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입니다. 이길을 시편 일편은 전시편책의 시작에 있어서 “천국의 열쇠”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신뢰합시다. 여호와 우리 주 예수님을 신뢰합시다.

— 아멘 —

메시아를 바라보는 시들(2편을 중심해서)

I.

주전 1세기에 저작되어 지방회당에서 사용된 솔로몬시(The Psalms of Solomon)는 시 2편을 메시아적 이해하였다.

“...다윗의 아들... 그로 하여금 당신의 종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사 악인들을 당신의 유업에서 부터 멸망케하시고 저들의 교만을 토기 그릇 같이 깨뜨리게 하시며 철장으로 저들의 모든 견고함을 부셔뜨리게 하소서”(17 : 39)

요나단 탈굽 역시 이런 메시아적 논조로 이해하였다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다음과 같이 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탈굽 시편은 메시아적으로 이해하였다. 왜냐하면 후대에 와서는 여호와와 기름부음을 받은자를 메시아 왕 이외에 다른 이로 생각지 않았다.”고 하기때문이다.”

그런데 후대에 와서 기독교와 유대교 간에 논쟁이 극렬해질 때 람비들이 이 시편의 “기름부음 받은자”를 자기들대로 해석하였던 것이다.

1) Vermutlich hat auch der targum Ps. 2 messianisch gedeutet ; denn die spätere Zeit hat bei dem “Gesalten” Jahves kaum an etwas als an den messianischen König gedacht Str,-Bill., III, p. 675.

유대주의 한 지류인 사해사본 역시 이 시 2편을 메시아적으로 이해하였다. 4Q Florilegium은 시2 : 7과 삼7 : 14에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해서 미드라쉬적 “gezerah shaweh”²⁾ 해석원리로서 이스라엘의 참된 왕과 (시2 : 1-12) 다윗의 더 큰 아들 (삼하 7 : 12-17)과 연결시킨다.

II.

신약자들이 시2편을 인용하거나 언급할 경우 모두 메시아적으로 해석 하였다.

E. Nestle이 편집한 Novum Testamentum Graece(Germany, 1971) p.662. 에서 그 상황은 다음과 같이 말해준다.

- 2. 1. 2 : Act 4, 25.26
- 1. 5. 12 : Apc 11, 28
- 2. : Apc 6, 15 : 11, 15 ; 17 : 18 ; 19, 19.
- 7. : Mt 3, 17. Act 13, 33.
- H 1, 5 ; 5, 5 ; 7 : 28, 2p 1:17.
- 8. 9 : Apc 2. 26
- 9. : Apc 12, 5 ; 19, 15

a) 사도들은 한번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시 2편의 성취로 보고 있다는 점이 다.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에게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은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였다 함이라. 시편 둘째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였고 (행13 : 32-33)라고 하였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있다. 히1 : 4-5에서는 예수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천사중 누구에게 말씀 하셨는데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였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을 두고 한말이 되는 것은 그가 성부 오른쪽에 앉아 천사들 보다 높은 이름을 가졌기 때문이다. (히5 : 5) 그리고 사도요한은 “저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하는 내 아버지께 받은것이 그러하리라”(계2 : 27, 19, 15)는 바로 시2 : 8, 9에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림이어 질그릇 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도다”에서 온 것이다. 그리고 원시 교회의 성도들이 위협과 핍박을 받을때에 시 2편으로 기도하였다 (행4, 25-28). 지상의 왕들과 방백들이 주와 그 기름부은 자를 대적키 위해 모였다 하고는 하나님의 그 기름부은 종은 “하나님이 기름부은 거룩한 종 예수”라고 한다.

b) 하나님이 자신이 이 시 2편을 사용하셨다. 예수님이 요한에게서 세례 받을때에 하늘에서 소리나서 이르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막1 :

2) “단어의 유추인데 한 절에서 다른절에 같은 단어가 나올때 두 별개의 경우를 같이 생각하는 원리.

11) 또 변화산상에서 구름가운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실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말을 들으라”(마17:5)하였고 베드로는 이 사건을 벡후 1:16-18에서 기억하는데 그는 시2편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의 엄위하심에서 성취된 점으로 보는 것이다. 특히 벡후 1:19에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취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샨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고 했는데 여기서 베드로는 하늘의 소리와 예언의 말씀(= 시 2 편)과 관련시키는 것이다.

예수님 세례받은 당시의 하늘의 소리를 도식하면 다음과 같은데 본문전승에 의미를 주겠다.

마3:17	막 1:11 눅 3:22	에비온복음.3	시 2:7(LXX) 눅 3:22(v, l)
αυτος εστιν ο υιος μου ο αγαπητος εν ω ευδοκησα (και παλιν)	συ ελ ο υιος μου ο αγαπητος εν σοι ευδοκησα	αυ μου ελ ο υιος μου ο αγαπητος εν σοι ευδοκησα εγω αημερον γεγεννηκα σε	υιος μου ελ συ — — — εγω σημερον γεγεννηκα σε

III.

a) 신약주석에 있어서 구약과 연결해서 보는 것은 아주 지당하고 필요한 일인데도 그렇지 않는 경우가 바로 오늘날의 신약학자들의 견해다. 예컨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란 말들의 출처를 찾음에 학자들은 헬레니즘에서 온 것이다. 아니면 유대주의 어디에서 굴러다니고 있었던 말로 생각하였지 시2편에서 그 원천을 찾지 않는 것이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예수)는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에 그 장래 유대인들의 어떤 대망사상에서 왔다가 보다는 시2편의 약속에서 그 의미를 찾았음을 우리는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b) 고금을 통해서 시2편에 대한 주석이 문제되어 온 것은 본 시편의 화자(The Speaker)가 메시아나 혹은 역사적 왕이나에 대한 문제로 나누어지는데 만약 화자라고 할때에 누구냐에 대해서는 Rashi 주석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 랍비들은 그것이 메시아 왕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그 명백한 의미에 따르면, 즉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로 다 올라 오매 다윗이 듣고 요해처로 나가니가 (삼하5:17)는 진술을 봐서 다윗과 관련해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한다. J. Ridderbos 주석도 시2편 전체가 처음에는 다윗왕에게 말되어진 것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시2편을 “양자 삼은 시”(adoptie-lied)라고 본다. 즉 지상의 왕이 즉위하므로 하나님의 의해 아들로 양자되었는데 왕 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로 낳아졌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많은 주석가들이 시2편이 예수님에 의해 적용된 것은 후대의 해석이라고 한다. 즉 다윗왕 즉위시의 노래가 새로운 조명을 얻게 되어 이 고대 말들이 이제는 예수님께 적용되어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질때에 시2편은 순수한 예언이라고 말할 수 없고, 바울이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한 말도 조상들에게 있었던 약속들에 하나님은 새로운 내용을 주었다는 격이 되고 만다. J. Ridderbos는 이러한 해석을 “시초의 성취”(aanvankelijke vervulling)나 “완전한 성취”(de volkomen vervulling)로 설명하지만 문제해결은 못된다. 더욱이 그가 “이 말씀이 최초로 그 완전한 성취를 발견하는 그리스도가 영원한 자연적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함이 여기서 요점이 아니고 그 성취가 예언 보다 더 풍성해(rijker)진 것이라”고 함은 (The Pasmen I p24 noot.1)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든다. 여기서 더 풍성한 성취라고 하는 것은 실은 예언내용의 성취보다는 더 나은(재) 해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점에서 리델보스는 칼빈과는 다른 것이다. 비록 그가 칼빈을 들어 말하나 칼빈이 다윗 안에서 부분적 성취로 적용되는 것이아니고 후대 성취로 보지만 리델보스와는 달리 이 시가 궁극적으로 다윗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후대 성취로 봐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c) 이점에 칼빈의 시편주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루터와 비교해 봄도 유익하리라 생각된다. 루터가 성경의 문법적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기는 하나 그의 시편 주석(1513-1516)은 시편을 영적(즉 기독교적)이고 영원적인 — 즉 미래·하늘·영생 —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루터에게는 사후의 영원한 실재와 무단히 만나게 된다. 반면에 칼빈에게는 우선은 자신이 지상의 생애에 대해 관심하므로 영원한 실재같은 것은 당분간은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그 다음 현세의 한계점에 도달한 후에, 성경에 지시되어 있다고 하면 타계(他界)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먼저는 기적이거나 은혜보다는 가능한 논리적 과정이 있는 것이다. 몇 경우들을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시27:13에 “내가 산자의 땅에 있음이어 여호와의 은혜 불것을 믿었도다”에 대해서 루터는 “여호와의 은혜 그것은 영적인 것이며 영원한 것이다.”라고 한 반면에 칼빈은 말하기를 여기서 어떤 이들이 주장 하듯이 하늘의 유산이라고 강압되는 데 그것은 성경의 보통 격식과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고는 칼빈 자신은 그것을 “의심없이 현세의 생명이라”고 주장한다. 시36:9의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에 대해 루터는 요1:1에 비교해서 생명의 원천을 “인자”로 보고 “주(thee)를 “성부”로 본다.”

칼빈은 이것을 인간생명으로 해석한다. “불경건한지는 저들이 살고 움직이고 저들의 존재를 가짐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인정치 않고 오히려 저들 자신의 능력에 의해 유지

3) WA 150, 10: boma domin que sunt spiritulia et eterna.
4) WA III 200, II: Quoniam apud te patrem, sicut vervum erat apud Deum, et hoc erat in principio apud Deum, est fons filius Vitae omnis.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다윗은 반대로 경건한 자의 경험에서...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단언한다.” 이로써 그가 의미하는 것은 생명의 한방울도 그가 없이는 발견될 수 없다는 것이다.” 시56 : 13 “...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를 루터는 그것을 “영원한 은혜 진실로 은혜”⁵⁾라고 하고 칼빈은 그것은 “생명적인 태양의 빛을 즐기는 것 이외 다른 것을 의미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로 보건데 루터는 시편에서 하늘의 미래 생명을 인정하고 칼빈은 시편에서 지상의 생명만 주장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다 현세와 내세의 생명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주장한다. 시41 : 3에 대해 루터는 “여기서는 영혼 미래에서는 몸”⁶⁾의 보호를 말한다. 칼빈은 이 귀절에 대해 “생명의 회복”이며 지상에서의 “지복”으로 해석한 다음 “시편기자는 이러한 표현들으로써 사후의 보다 나은 생명에 대한 소망을 제거 하지 않는다”고 한다. 현세 다음의 내세의 생명으로 주석함이 칼빈의 시편 주석의 특징이다(9 : 14, 27 : 1, 73 : 24등). 처음에는 가시적 현실에 관심하나 그 다음에는 불가시적 현실에 관심한다. 이러한 내세 생명에 대한 해석이 미래(또는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예언적 시들도 역사적 환경과 관계되는 것이나 영감은 점진적이며 이전적이다. 그러나 칼빈은 예언시의 궁극적 적용은 결국 메시아에만 적용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다. 칼빈의 시2편의 주석을 보라.

d) 양자삼은 시로 해석함이 잘못되고 이 시2편은 직접 메시아(: 예수) 예언임을 J. Van Bruggen 교수는 다음 6 가지 이유를 든다.”

1) 다윗 가문의 장래에 대한 아윗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들을 위하여 아버지가 될 것이며 이들은 하나님께 아들이 될 것이라서 (삼하7 : 14, 대상28 : 6) 이들이 “나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시89 : 27) 그러나 이 약속은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한 아들들 “낳을 것”이며 그에게 직접으로 “너는 내아들이다”(시 2 : 7)라고 말 될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차이가 LXX역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시2편의 예언은 낳는다는 말로 되어 있음에 유의하라.

2) 시89에서 탄식하는 것은 다윗 가문의 죄들에 대한 하나님 심판을 보면 다윗에 대한 약속은 어찌되느냐 이다. 그런데 시2편에서는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자와의 연합은 시89:33과는 달리 무조건적이다.

3) 다윗 역사를 보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대관식 훨씬 전에 있었다. 그리고 그 대관식도 예루살렘에서가 아닌 헤브론에서 있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려 갔을 때에 그는 이미 오래전에 대관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시2편은 다윗의 대관과는 역사적으로 맞지 않다. 만약 우리가(행4 : 25이 말함에도 불구하고) 한 후대 왕이라고 해서 솔로몬 시대라 해도 맞지 않는것은 많은 열방이 오히려 이스라엘에 의

5) WA 313. 16 : coram deo in Luminae eterne glorie, immo et giatie.
6) WA III 229. 6 : hic in anima at futuro in corpore.
7) Het lezen van de Bijble, Kampen ; J. H. Kok 1981 pp. 128-129.

해 구박 받으며(비교2 : 1-3) 그의 정부에 반대하는 아무런 저항도 없었다.

4) 다윗 가문의 왕들은 예루살렘에서(at) 통치하나 이스라엘 또는 유다에 대해(over)통치한다.

시2편이 유다왕에 대해서 말할때는 하나님이 그를 시온에 대해(over Sion)왕으로 세운다는 의미이다.

5) “예루살렘에 대해서”(over Jerusalem)로서 서술되어 있지 않고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대해”서술하고 있다. 유다왕들 중 어느 누구도 여호와와 거룩한 산에 대해서 통치했다고 감히 말할 자가 없다.

선지자들이 말한 시온은 하나님의 도시로서 예루살렘을 지칭할 수 있겠으나 “시온”은 하나님이 왕이신 성전 영역을 지칭하는 특별한 의미를 가리키며(시48 : 7, 74 : 2, 84 : 8)그것은 시온산이다. (사4 : 5, 10 : 12, 18 : 7, 31 : 4, 애가 5 : 18) 이것은 여호와와 영역이고 그가 여기서 영원히 거주하면서 이곳에서 다윗의 뿌리 나게 하실 것이다. (시 132 : 13, 17) 왕은 시온산 성전에서 백성에 대해 통치한다. 웃시야 왕은 거룩한 산성의 핵심인 성전에서 왕권을 행사하려 하다가 문둥이가 된 일이 있다. (대하26 : 16-21) 시 2 : 6의 한 왕을 여호와께서 거룩한 산성 시온에 세웠다 할때에 그왕은 다윗 솔로몬, 등 구약의 어느 왕보다 더 높은 거룩한 왕을 지칭함이 분명하다.

6) 시2 : 12에 지상의 왕들이 “아들”에게 입맞추도록 하며 그에게 피하라고 하고 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데 구약 전체를 볼 때 사람이 피난 해야 할 곳은 하나님이시며 다윗의 신조는 하나님이 파난처라는 것과 그에게 모두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시18 : 3, 31, 36 : 8-10). 시2편의 결론은 하나님 같은 분으로서 하나님 기름부음 받은자를 생각케하여 지상의 어떤 왕이 될 수 없다.

IV.

시편 연구에 있어 가장 의미있는 시들은 그 시가 예언적 성격을 나타내는 메시아적 시편(The Messianic Psalms)일 것이다. 참고로 고 J. B. Payne교수는 그 시편들에 대한 이해를 다음과 같이 도표를 그려 주고 있다.⁸⁾

시편	주 제	메시아적 귀절	신약 증거	메시아적 의미를 나타내는 단서들
<u>그리스도가 3인칭으로 말되어짐</u>				
8	겸손과 영광	3-8	히2 : 5-10 고전15 : 27	8절 만물이 그 발아래있다는 것은 인간에게 적용 못됨.
72	통 치	6-17		5 : 미래로 이전 7 : 그통치가 영원함

8) Encyclopedia of Biblical prophecy, New York ; Harper & Row 1973, p. 260.

89	다윗에 대해	3-4, 26 28-29, 34-37	행2 : 30	8.그영역이 우주적인 9-11모두가 그를 경배함 4, 29, 36-37 다윗의 자손이 영원함
109	유다가 정죄됨	6-9	행1 : 16-28	4-5절의 원수들이 6절에 서 한 저명한 배신자로 이전함 복수가 20절에 나 시 나타남 12 그 자손이 영원함
132	다윗에 대해	12하	2 : 30	
<u>그리스도가 제 2 인칭으로 말 되어짐</u>				
45	영원성	25-27	히1 : 10-12	1-22여호와께 말함 24절에서 인칭변함 28그리스도가 후손에 대 한 인간의 소망이다
110	승천과 제사장 직	7절 모두	마22 : 44-45 행2 : 33-35 히1 : 13, 5 : 6-10 6 : 20, 7-24	1.그가 다윗의 주다 4.영원한 제사장
<u>그리스도가 일인칭으로 말함</u>				
2	아들에게 입마춤	12절 모두	행4 : 25 13 : 23 렘1 : 5, 5 : 5	7화자는 하나님이 낳은 아들 2, 12 다윗과는 다른 기 름 부은자 8 더욱 소유 많아짐 썩지 않음은 다윗에게 적 용할 수 없음
16	썩지 않음	10	행2 : 24-31 13 : 33-37	
22	수난과 형제애 31모두	마27 : 35-46 요19 : 23-25 히2 : 12	162 찢어진 손과 발 18 옷을 두고 제비뽑음 이것들은 다윗에게 적용 안됨	
40	천국6-8	히10 : 5-10	1-5와 9이하의 찬양은 서술적 부분으로 중단된 다. 12 다윗은 언제나 하나 님 뜻 행하기를 즐긴것 은 아니고 8 그리스도는 즐겨하였 다.	
69	유다가 정죄됨	25	행1 : 16-20	특정한 처소가 황폐된다 함은 24절과 26절 사이에 일반화 되어가는 중간에 있다가 유다로 협소화 되 어감.

이스라엘의 능력은 어디에 있나? (시76 : 임마누엘시)

I.

오늘날의 교회형편이 이러하니까 아니면 시국의 정치 상황이 어려우니까 시편76을 읽어 보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의 역사의 실례들이 너무나 시편76의 말씀과 흡사하니까(예컨데 67년에 이스라엘 국가가 아람국가들을 납작하게 만든 전쟁) 역사의 한 순간들과 맞추어 보는 노력으로 시편을 대할것도 아니다. 다만 우리의 신앙 곧 시온을 자기 거쳐로 삼으시고 자기 교회를 신전도시로 선택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변함없는 그분에 대한 신앙이 이 시편을 보게 한다. 하나님을 더 알고파 하는 우리의 성도는 우리의 묵묵한 말씀에 대한 경건이 이 시편을 유심히 상고하고 있는 것이다. 현실은 말씀의 능력에 대해 침잠해지는 것 뿐이다. 이 시는 임마누엘 시들의 하나다. (48, 46, 76) 이 시가 개혁교회에 있어서 신앙고백의 근거가 되었고 이 임마누엘 임재 때문에 참된 교회가 모여졌고, 이것때문에 참된 교회의 능력이 있는 것이다.

이 시는 아름다운 시적 구조를 가질 뿐만 아니라 내용도 우렁차다. 하나님이 시온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만큼 그의 영광과 존귀로 가득 차 있다. 이 시의 구체적인 경향에 관해서는 견해가 다양하다.

II.

1) 이 시는 애굽의 속박에서 부터 구원을 의미한다고 하는데⁹⁾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대로는 역사적 개념으로 어떤 일정한 구원개념에 대한 감사시로 보는 것이다.

2) 칼빈은 산헤립 군대 침략시 예루살렘이 공격 받았던 재난으로 간주한다. (왕하 19 : 35, 사37) 특히 70인역의 'Ωδ η προς τὸν Ασσύριον' 앗수르를 이긴 송시라는 포제에 유의하고 있다. 행그스텐벨그 이나 델리취가 이와 같은 생각이다.

3) 또한 다른 생각은(칼빈도 언급하고 있다) 여호사밧 시의 모압, 암몬, 에돔이 연합하여 유다를 쳐 왔던 사실과 관련을 지운다. (역대하20 : 1이하)

4) Köning은 본시의 11절의 '사람' 대신 '에돔'으로 '노' 대신 '하맛'을 읽고는 에돔과 하맛 소바를 이긴것과 연관시킨다. (삼하8 : 9, 대하8 : 3)

5) Herkenne은 아하스시에르신과 버가의 예루살렘 침공을 말한다. (왕하16 : 5, 사1이하)

6) Hitzig와 Olshausen을 본시가 마카비 시대의 구원으로 본다. 위의 역사적 개념과 함께 본 시편을 종말론적으로 보는 자들도 있다.

Stade, Staerk, Gunkel 등은 혼돈과 파괴의 시절에 교회회증은 여호와께서 간섭하시

9) D. Eissfeldt, Kleine Schriften III. (1966), PP. 448.

서 심판의 날에 새로운 절서를 세울것이라는 믿음을 표현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세번째 견해는 이시가 소위 제의적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Mowinckel, Schmidt) 이 시는 여호와 등극시에 영화롭게 하는 축제시라고 한다.

윗 셋 견해들에 부분적인 진리성이 없다고 단정은 못하지만, 이 시는 46, 48과 함께 시온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위대성을 노래하는 것이다. 어떤 한 사건에 한정된 구원을 감사하는 “시온의 노래”라기 보다는 이 시편에서는 과거 구원의 사건과 관계해서 위대한 미래 지향적 구원으로 나아가는 노래다.

III.

이 시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로 계시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구분하면 3부분으로 나누어 진다: 2-4, 5-7, 8-13(히브리어 성경 본문에 따른 구분) 히브리 성경에서 시인은 발음상으로도 단어를 갖고 경건한 말 유희(Word-Play)하는 것은 볼 수 있다.

노다: 알려진바된(2 절)

노라: 경외될(5 절과 8 절)

12절에도 “라모라”하여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찌로다”라고 한다.

마지막 13절에서는 “노라 러마르케 아레츠”(저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 시로다)라고 한다.

이와 같은 시의 구조를 알고 또한 의미적으로 구분해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2. 하나님이 유다에 알려진바되며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3. 살렘에 그 “잠복처”가 항상 있음이며

그 “잠자리”가 시온에 있도다.

4. 거기서 그는 화살의 불꽃이며

방패며 칼과 전쟁을 깨뜨리셨도다.

* * * * *

5. 주는 두려워할 자이시며 “사자의 산들”보다 능력있도다.

6. 마음이 강한 자들이 탈취를 당하며

저들은 깊은 잠에 빠지니

장사의 한 사람도 저들의 손을 쓸 수 없었도다.

7. 야곱의 하나님, 주의 견책 때문에 병거와 말이 깊이 잠들도다.

* * * * *

8. 주 주만이 두려워할 자이시며

누가 감히 주의 면전에 서서 주의 진노를 격노 하겠나이까?

9. 하늘에서부터 주께서 판결을 선고하시매

땅이 두려워하여 침잠하였나이다.

10. 하나님이 판단하리 일어서심은

땅의 모든 온유한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도다.

11. 진실로 진노하는 에돔이 주를 찬양할 것이며

하맛의 남은 것이 주께 바쳐졌나이다.

12.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고 갚을 썬어다.

사방에 있는 모든자도 마땅히 두려워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 썬어다.

13. 저가 방백들의 심령을 격으시며

저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 되시도다.

신앙고백(2-4)

이와같이 시의 구분을 볼때 이 시의 시작은 하나의 “신앙고백”(confessie 2-4)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신앙고백하면 주후 교회사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되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구약에서 벌써 시적표현으로 고백되고 있는 것이다.

주 하나님이 유다에 알려진 바되며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오늘날 우리 신조들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를 고백하고 있는데 이런 고백들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 하겠다. 이 시편만이 아니라 시48편도 같은 진리를 말한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성이 아름다울 뿐만아니라(2) 피난처가 된다(3)고 한다.

영주들이 함께 모여 이 하나님의 성을 치러왔다가 놀라고 혼비백산하여 도망하였다고 한다.(4) 어떻게 두려웠든지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과 같다”(6)고 한다. 이러한 시온 산성의 위엄과 영광을 편답하고 순행하여 그 방백들을 계수해 보라고 한다.(12) 그런데 시76편은 보이지 않는 미미한 처지에서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 같이 보인다. 그렇게 눈에 두드러지게 특별한 것은 없다. 그저 단순하다. 살렘에 그 잠복처(covert)가 있으며 그 “잠자리”(lair)가 시온에 있다고 하는 아주 단순한 말이다. 마침 짐승의 미끼굴 같다.

Dahood는 5 절의 “탈취물”을 “사자”(욥38 : 39-40비교)로 번역하며 3 절과 잘 조화된다고 한다. 이렇게 보잘것 없는 듯한 성읍이면 성읍이다. 그러나 누구도 감히 알잡아 볼수 없는 것은 그곳에서 엄청난 힘과 능력이 그 거처에 있어 이스라엘은 그 힘에 의해 산다는 것이다. 이 시편이 원래 이스라엘의 어느 역사를 의도하고 썼는지는 확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거기서 무엇인가 일어 났으며 그것이 확정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상한 힘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해방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 시편이 의도하는 사건은 세상의 눈에는 매우 미미하고 한쪽 구석 유대나라 조그만한 예루살렘 일들로서 세계 민족이나 종교사에서 무시해도 좋을 것 같이 생각된다. 그러나 이 고백의 노래는 결국 적게 불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당시 이스라엘을 자유시킨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의 힘으로 되어진 일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라는

것이라. “거기서 그는 화살의 불꽃이며 방패와 칼과 전쟁을 깨뜨려셨도다”라고 하고 있다.

승리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5-7) “주는 두려워할 자 이시며 사자의 산들보다 능력있도다”(5) 하나님은 자신이 살렘의 하나님으로 알리자 원수들이 곧 질겁을 하여 무력하여 진다. 아무리 힘센 사자들이 그 미끼를 좋아해도 그냥 내버리고 가는 꼴이 되어 탈취물만 남아 주우면 되는 형편이 된다. 여기 이 노래에는 두 가지 사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여기 영적인면과 구원사적인 면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6 절은 영적인 언어가 구사되고 있다:

“마음이 강한 자들이 탈취를 당하여
저들은 깊이 잠에 빠지니

장사의 한 사람도 저들의 손을 쓸 수 없었도다”

이 시가 고대 이스라엘인들이 썼으니 지금도 이스라엘 국가에 적용될 수 있다하여 아랍국가들과의 전쟁 이야기의 실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오만방자한 용사들이 깊은 잠에 마취되었다는 것이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된 거야 우리야 말로 강하지 아니하였던가? 우리야 말로 수많은 병거며 미사일이며 항공기며 탱크를 가졌지 아니했던가? 그런데 어찌된 셈이야 우리 지금 아무것도 이룬것없고 우리 “손들”을 “발견할 수”없다고 한다. 저들은 도무지 아무것도 한것이 없게 되어 저들의 힘이 무슨 소용이 있게 된다 말인가?

그런데 이런 신령한 일들이 동시에 7 절의 구원사와 연관되고 있는 점이다. 야곱의 전능자 하나님이 병거와 말들을 분리시켜 수중에 잠겨버렸던 그일, 이 일에 대해 모세는 홍해 바닷가에서 노래하지 아니하였던가. (출15)

그래서 노래(hymn)가 나옵니다. (8-13)

“주 주만이 두려워할 자이십니다” 이렇게 신앙의 결론이 나옵니다. 누가 감히 주 앞에 설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모든것 진실로 모든것 — 과거, 현재, 미래 — 를 서로 연관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과거에 일어나고 경험된것들이 지금에 와서는 세상에 그 결과가 나타나고 후대에 역사무대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판결을 선고하매
땅이 두려워하여 침잠하나이다”

위의 “침잠하나이다”(샤크타하)는 말은 구원사에 여러번 나타나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사사기서에 자주 나타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의 죄때문에 원수들에게 넘겨졌는데 이들에게서 땅과 성읍(수1:23, 14:15, 삿3:11, 30, 5:31, 8:28 왕하7:26)이나 백성이(삿18:7, 27)원수들에게서 평온함을 얻을때에 쓰여졌다. “전쟁이 끄쳤더라” 또는 “한가하더라”로 우리말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땅이 하나님의 심판에 오염하고 그리고는 침잠하는 것이다. 여기 시인은 자신은 기록하고 의인인데 땅은 적막해졌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시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땅을 잠잠케하심은, 온유한 자를 구원케 위해서라고 한다. 하나님 위엄 앞에 엎드려 그와의 언약을 의지하고 도움을 청구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구원키 위해 일어섭니다. 그리스도가 말했듯이 이스라엘 집의 모든 잃어버린자를 구원키 위해 일어 섭니다. 여기 시인은 “땅”(에레츠)이라는 말이 3번 나타남과 함께 (9, 10, 13) 그 시야가 넓어져 간다. 9 절에는 땅이 두려워 하여 잠잠해지는데 10 절에는 원수들에게서 부터 벗어난 평화를 얻는 땅의 온유한자를 말한다. 그리고 11 절에는 그당시 에돔과 하맛같은 세상권력이 여호와께 영예를 가져왔는데 13 절 결론은 “세상”(에레츠)의 왕들이 그러할 것이다. 12 절 상반절은 정복된 원수들이 여호와께서 원하고 화복제를 가져와야 하는 가하면 하반절에는 온 백성들을 의미하데 “그 주의에 거주 하는 이들” 즉 “사방에 있는 모든자”인데 시89편에서는 이말이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성도들을 두고 사용된 말이다. 그러니 이 시편은 당시의 정치적 차원에서 정복당한 백성들이 다윗과 그집에 조공을 바치는 것으로 보아지나 사실은 시온에 거처를 삼고 높은자를 낮게 만드는 진정으로 두려워할 자를 말하는 우주적 차원이다.

IV.

그러니 이 시온의 노래의 주제는 하나님이 시온을 자기 거처로 삼으니 비천한 자가 높아지고 교만한 자가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런점에서 이 시는 한나의 찬양이며 이 한나의 찬양을 반영해주는 마리아의 노래를 생각케끔 한다.

그리고 시76편의 신앙 고백과 찬양은 단순한 차원의 찬양이기는 하나 세계사적 차원에 놓여 있는 참된 교회 상을 보여준다.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사방에 거주하는 모든자”에 관계된다. 이것은 한나 일개인의 노래였지만 온 세계사적 의미를 가진것과 같다.

이것은 바로 이 시의 독특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과 관계를 가져 임마누엘 하시는 것이다. 개혁자들은 이 시들을 좋아했다. 우리는 46편과 감사시로 보았다. (그는 시편46편에 근거하여 “내 주는 강한 성이요”를 지었다) 루터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그 거처를 삼고 밑썹과 봉사를 이루시고 열방왕들을 대항하여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심을 감사하는 것이다. 칼빈은 이 시편76편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다. “성의 구원에 대한 묘사에 의해 하나님이 하늘로 부터 자기 권능을 행사하사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심으로써 모든 영광이 자신에게 속한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동시에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며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신것은 어떤 다른 생각에서가 아니고 다만 유대 민족을 값없이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실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는 자기의 권세를 아무도 대적한 자가 없음을 증명함으로써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의 그늘 밑에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부르시고 용기를 갈도록 해주신다
 ……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상영되는 특징을 가진 극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가장 큰 주의를 기울여 교회에 베풀어진 은총들, 즉 모든 세대들이 마땅히 기억해야 할 특별한 은총을 우리들의 배은망덕함으로 망각 속에 싸이게 하거나 묻어버려서는 안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금 하나님께서 보이는 장막에서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아니 우리들 안에 계속해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완전한 안전을 체험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된다. 땅에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을 동안 하나님의 옛날 백성들에게 구원의 장소가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성전으로 택하시 자신의 성령으로 거하실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생각할 때에 오늘날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더할 나위 없는 관심을 가져 주시리라는 것을 확신 할 수 있다.¹⁰⁾

잊어서는 안될 노래(시적 구조의 힘을 가진 107편¹¹⁾)

I.

잔잔한 바다로 항해를 하다가도 갑자기 노도광풍이 휘몰아쳐 오는 위급함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 선원들의 경험이다. 우리의 인생살이가 흔히들 이렇게들 비유됩니다. 하늘이 캄캄하고 성난 파고는 하늘까지 높아졌다가 지옥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배라 할찌라도 이런폭풍에는 파선되기 마련입니다. 선원들은 사력을 다하여 살려고 하였지만 기운이 진하고 기진맥진하여 내동댕이쳐진 형편에서 인생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난파당한 형편에서 정성드린 기도로 참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기도는 고사하고 황급한 지경에 의식이나 있겠습니까? 물론 미사여구로 꾸민 기도같은 것은 생각도 못할 일입니다. 있을수 있다면 응겁길에 내뱉는 기도—그것이 기도라고 할런지 몰라도—가 아니겠습니까? 좌우간 아무리 억세고 강한 뱃사공이라 할찌라도 완전히 뱃빠져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는 인생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죽음앞에 있는 가련한 인생에게 자비만이 필요한 것 뿐입니다.

시편107편은 이러한 위급시 곧 곤고한 시기에 나오는 기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근심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6)고 합니다. 여호와께 고통지르는 기도입니다. 불안과 근심이 있고 사태가 사태인 만큼 별수 없이 인생이 그 고통가운데서 여호와께 애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재난시에 말이 많은 기도가 필요없습니다. 그저 하나

10) 존 칼빈 원리, 구약성경주석, (서울: 성서교재 간행사, 1980) pp. 305-306.

11) 도표참조(후면에)

님! 그저 주여! 그저 부르짖는 것 뿐입니다. 고통시에 신음하는 기도입니다. 시편의 성도들이 다 인생인고로 환난을 당하고 불안속에 싸이면 별수없이 나오는 기도입니다. (시78:1, 86:1, 142:1-6, 22:6, 34:18, 9:13등) 이럴때에 하나님은 쾌심한 너석들 같으니 실컷 죄짓고 반역하더니 급하니까 내게 부르짖는구나 꺼져라 하여도 무슨 항변을 할 수도 없는 인생이고, 하나님은 무슨 채무가 있어 응답을 해 주어야 할 분도 아닙니다. 궁급한 시에 손을 내밀때에 구조하고 안하고는 여호와와 의의요 주권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황급한 지경에 구조를 자원적으로 하실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II.

어디 하나님은 폭풍우 만난 경우만 도와주시겠습니까? 여기 이 시편은 “저희가 그 근심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라고 하는 말이 네번이나 나옵니다. (6, 13, 19, 28) 말하자면 다른 위험스런 형편들이 네번 나타나는데 그때마다 이 호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야 각기 다르기는 하지만 한가지 면에서는 동일한 점을 갖고 있습니다. 인생이 최극도의 절망가운데 완전히 살 소망이 없는 그런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위험입니다. 우연히 어찌다가 밀어 닥치다가 스쳐 지나가는 그런 위험이 아니라 아주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위험으로 사망자체가 엄습해 오는 그런 것입니다. 사망의 세계가 인생에게 오고야 만다고 듣기도 하고 알기도 하였지만 이럴줄이야 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이런식으로 나타나구나 위협해 오구나 하는 그런 경험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진실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생에 대한 이러한 어둠의 의미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만 아니라 고대 어느 세계에서도 잘 알려진 사실로 다들 무섭게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편107편은 이 사망이 나타나는 위험을 4 가지를 대표적으로 한테 모아 둔 것입니다.

어떤이는 이 넷 형편들은 여기 저기 형편이 다르게 흐터졌던 무리들이 예루살렘의 절기를 당하며 함께 모여 불렀던 노래라고 합니다. 특히 바벨론 포로생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그들이 당한 위험을 열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해준데 대한 하나님께 찬양으로 보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33-43절을 후대 첨가된 것이라고 합니다(Kraus). 이와는 반대로 다른이는 33-43절은 역사적 암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앞의 귀절들을 다시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시편의 한 저자에 의해 만들어져 통일성이 있다. 예컨대 40절의 방백들은 “이스라엘인들에 의해서 가나안에서 쫓겨난 가나안 지도자들 이라”고 합니다.(Dahood)

또 다른이는 본 시편이 “일정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고 언제나 일어날수 있는 곤고한 상태의 유형으로 생각된다”고 합니다(Herkenne). 물론 우리는 이 시편의 역사적 정확이야 출애굽시대인지 포로후 시대인지, 정확히 꼬집어 말할수 없지만은 생에 부딪히는 죽음의 현실을 그렇게 심상히 생각지 않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넷 경우의 위험은 각 경우마다 죽음 자체의 엄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넷 경우일까? 성경은 넷 수를 완전수로 뜻하며 전부를 의미합니다. 본 시편 기자역시 3절에 “동서남북 각지방에서 부터”라고 하여, 호터졌어도 모질게 사방에 호터질대로 호터졌으니, 이제 모인자들이 어떻게서든지 그 위험에서 구조해 주신 여호와를 완전히 노래해야 한다고 한 것처럼 이 넷 위험은 죽음의 위험이 철저함을 말하려고 한 것입니다. 조금 시험해 보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으로 넘겨진 위험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얼마나 세였기에 인간의 무능력이 철두철미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신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였는데(롬6:23) 시편은 이렇게 죽음의 위험에 넘겨진 이유를 죄 때문이라고 거듭 말합니다.(11, 17, 34) 여기 넷 경우의 형편이 서로 대조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보완하는 서술로서 사망이 와진 것이 여호와께서 심판하였기 때문으로 보아졌고 그 결과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진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험이 죄 때문에 와졌다고 할찌나 인생이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기자는 갈수록 강조있게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III.

이 넷 위험들을 간략히 열거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사막에서 유리 방황되어 배고픔과 갈증으로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것입니다.(4-5) 두번째는 철장문의 캄캄한 곳에 밀폐되어 있는 감옥을 말합니다.(10) 세번째는 죽을병에 걸려 먹기가 싫고 무덤에 이른 것 같은 것입니다.(17-18) 네번째는 큰 광풍을 만나 높고 낮은대로 텅굴다가 기진맥진한 상태입니다. 여기 이 넷 특수고하고도 대표적인 형편, 그 종막에는 죽음이 있고 비참과 절망이 있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면 인생은 부르짖음입니다. 죽음의 본질이 철저한만큼 인생은 철저하게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기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곧 바로 나타납니다. 더욱이 이 시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할 것을 재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편은 너무나 잘 짜여진 노래입니다. “위급한 지경 — 애원 — 구조 — 감사”의 틀을 갖고 있습니다. 각 형편마다 철저한 경험이고 현실이기에 죽음 위험때마다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 나타난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이것은 시편의 후렴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죽음의 위험이 생명구조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편의 후렴이 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이른 극한 상황에서 인생이 할것이곤 없다. 이것이 더욱이 죄 때문에 와진 것이라고 하면 인생은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다. 상황이 진지하고 급한데 인생이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다. 여기에 부르짖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비록 죄 때문에 그런 상황이 와 졌다할찌라도 거기서 구조되는 길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독교 나라인 화란격언에는 발음상의 묘미를 가진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부르짖음은 능력을 가진다”(De klacht heeft kracht) 사실 그러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구원사적(heilsgeschiedlich) 사역을 알고 있기에 부르짖음을 이 시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진실하고 급한데 여기에 무슨 회개니 간구니, 폭넓은 기도의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부르짖는 것입니다.(6 상, 13상, 19상, 28상) 여기에 여호와께로부터 즉각 응답이 왔다.(6 하, 13하, 19하 28하)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흑자는 우리의 생활경험에서 부르짖어도 구원은 없으시다 할찌 모르나 문제는 여호와에게(전치사“엘”)입니다 오직 그에게만 부르짖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저런 신들에게 호소할찌 모르나 참된 응답을 받으려면 오직 참된 하나님에게만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가 응답받는 장소이고 바른 주소입니다.

여기서 여호와께 구원해 주십니다. 철저하고 완전한 구원이요. 해방입니다. 여호와께만 부르짖으면 그분은 여러분이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거기서부터(전치사 “민” 6 하 13하, 19하 28하)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은 여러분이 처한 구체적인 위험에서 구조되는 결과가 되며 또한 하나님께서 형편에 맞는 적절한 보완 장치를 마련하여 주십니다.(7, 14, 20, 29-30)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은 철저하고 세밀합니다. 여러분! 부르짖음의 힘이 어떠하였는지를 애굽기나 사사기서를 보면 잘 알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서편기자는 강한 대조적 현상을 나타내 보일려고 한 것입니다. 인생이 어려움에 부르짖고 하나님은 속히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죄지은 백성이지만 그 원수의 처소인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비록 죄의 값은 사망이라 할찌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롬 6:23) 이제 부르짖음의 결과는 이러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롬 5:22)

IV.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은자가 어찌해야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철저하게 소리 높혀 “여호와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인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찌로다(8, 15, 21, 31)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철저한 비참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자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은 시편기자는 네번 말함으로 나타냅니다. 구원받은자의 경험은 우리 이런 죄인에게 무슨 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으며 그의 인자하심에 있었던 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생으로 하여금 비참을 통해서 그를 사랑토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곤고한데서 부르짖은 만큼 그 결과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의 정이 있고 행동이 따라 옵니다. 경우마다 구원해 주신데 대한 찬송해야 할 이유가 열거되는

가 하면, (9, 16) 죽을병에서 구조 받은자는 찬송할 방법을 말하기를 감사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즐거히 말할찌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2) 폭풍의 사경에서 구조 받은 자는 감사해야 할 장소를 말해줍니다. “백성의 회에서 저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저를 찬송할 지로다”(31) 라고 소리 높여 외칩니다. 정말 사경에서 구조 받은 자는 그 감사의 정을 억제 못하여 무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하 몇천 미터 탄광에서 매몰되었다가 구조 받은 성도의 감사의 노래를 기억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이름, 구원자 예수의 이름을 교회에서 우리가 일하는 사업장에서, 아니 우리가 종사하는 정치무대 의회에서 외쳐야 겠습니다.

V.

그런데 사람들은 이 107편 시를 읽기를 잘합니다. 전 교회가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온 백성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능력을 잊어서는 안되겠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이리기에 이 시편은 의미를 가집시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과 사랑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연도 통치하시고(33-38) 인간제도 통치하십니다. (39-43) 옥토의 자연이라 할찌라도 그것을 형편없는 불모로 바꾸어 놓읍니다. (33-34). 반대로 하나님은 사막을 샘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35) 하나님은 방백들을 낮추시고 궁핍한 자는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노래는 바로 한나의 찬양이었으며 마리아의 찬양의 주제였습니다. 비록 죄로 말미암아 비뚤어진 세상이라 할찌라도 모든 사건과 영역에 메시아적 질서를 확립시키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편의 하나님은 신 구약에 구원의 빛을 일으키시는 구원사(史)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분 하나님을 찬양해야 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능력과 질서를 지혜자라면 잊지를 앓을 것입니다. 지혜자라면 이 일들을 유심히 상고 할 것입니다. 특별구원으로 역사했던 하나님이 일반우리의 삶의 자연계며 인간계와 무관하던 하나님이 아니 였시라 우리의 지난날 구원을 잊고 있다면 우리의 삶속에서 그것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우매자는 이 구원질서를 유념치 않고 위험이 오면 실의와 절망해 버립니다. 사막, 감옥, 병고, 파선의 사경에서 그대로 좌초해 버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여호와께 어떤 경우에서도 부르짖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와의 크신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구속받은 자의(2) 노래의 주제는 시107편의 초두와 말미의 말이 말해 주듯 “여호와”이며 그의 “인자”입니다. (1, 43)

성도가 잊어서는 안될 노래의 주제는 이것 뿐입니다. — 아멘 —

11) 시편 107 :

11) 시편 107 : 특별제에서의 하나님의 구원					
서 연	הַיְיָ לַיהוָה בְּרֵטוֹב כִּי לְעוֹלָם חַסְדּוֹ (1)				
	A (4-9)	B (10-16)	C (17-22)	D (23-32)	
I. 형편	בְּמַרְבֵּר (4)	אֲסִירִי (10)	יְהֵעָנִי: (17 ^a)	רִחַם סְעָרָה (17 ^b)	
a. 이유		הִמְרִי אֲמִירֵי-אֵל וּמַצָּח עַל-יָדָיו וְנָאֲצִי: (11)	מִדְּרַף פְּשָׁעַם וּמִעֲוֹנוֹתֵינוּ (17 ^a)		
b. 결과	נִפְשָׁם בְּהֵם תְּחַלְטֻף: (5)	וַיִּכְנַעוּ בַּעֲקָל לֶבָם וְקָשְׁלוּ וְאֵין עֹזָר: (12)	כָּל-אֶקֶל תְּחַעֵב (18 ^a) וַיִּזְעַעו עַד-שָׁעָרֵי מוֹת: (18 ^b)	נִפְשָׁם בְּרָעָה תְּחַמּוּנָה: (26 ^a) תְּחַבְּלֵנָה: (27 ^a)	
II. 인간의 호소	וַיִּזְעַקוּ אֶל-יְהוָה (6 ^a)	וַיִּזְעַקוּ אֶל-יְהוָה (13 ^a)	וַיִּזְעַקוּ אֶל-יְהוָה (19 ^a)	וַיִּזְעַקוּ אֶל-יְהוָה (28 ^a)	
III. 하나님의 응답	יִצִּילֵם (6 ^b)	יִשְׁעֵם (13 ^b)	יִשְׁעֵם (19 ^b)	יִצִּיאֵם (28 ^b)	
a. 결과	וַיִּדְרִיבֵם בְּגִבְרֵת וְשִׁבְחָה (7 ^a)	וַיִּצִיאֵם מִתְּשֻׁבָּה וּצְלָמָוֶת (14 ^a)	וַיִּשְׁלַח דְּבָרוֹ וַיְרַפְּאֵם (20 ^a)	וַיִּקְם סְעָרָה לְדָקְמוֹהָ וַיִּחַשֵׁי גִלְיָהֵם: (29)	
b. 보완	לְלֶכֶת אֶל-עִיר מוֹשָׁב (7 ^b)	וּמוֹסְרֵיהֶם וַתַּחֲקֵ: (14 ^b)	וַיִּמְלֵטֵם מִשְׁאוֹחַתֹּחֵם: (20 ^b)	וַיִּנְחָם אֶל-מִוְחָו חַפְצָם: (30 ^a)	
IV. 감사	יִדְּוּ לַיהוָה (8)	יִדְּוּ לַיהוָה (15)	יִדְּוּ לַיהוָה (21)	יִדְּוּ לַיהוָה (31)	
a. 이유	הַשְּׁבִיעַ, מִלֵּא-טוֹבֵי (9)	וְנָלַעַ, שֹׁבֵר (16)			
b. 방법			וּבְתֵי חוֹדֶה (22 ^a) בְּרָעָה (22 ^b)		
c. 장소				בְּקֶה־לְעָם וּבְמוֹשָׁב זָקֵנִים	
일반제에서의 하나님의 섭리					
자	상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וְהָרוֹחַ וּמַצָּאֵי מַיִם אֶרֶץ אֲרִי	→	לְמַרְבֵּר לְצִמְחוֹן לְמַלְחָה	(33 ^a) (33 ^b) (34 ^a)
계	이유	מְרִיזוֹת יִשְׁבֵי בָהּ			(34 ^b)
		상	←	מְדַבֵּר וְאֶרֶץ צִיָּה	(35 ^a) (35 ^b)
인	상	לְאָנִים-מַיִם: (38)	→	וַיִּמְעָטוּ וַיִּשְׁחוּ	(39 ^a)
		וְדִיבִים וְקַל-עוֹלָה	→	וַיִּשְׁפֹּךְ בּוֹוּ קִפְצָה פִּיהָ:	(40) (42)
계	상	וַיִּשְׁלַב עָם וַיִּשְׁלַב וַיִּשְׁלַב	←	רַעֲבִים אֲבִילוֹן וְשָׁרִים	(36) (41) (42)
		결	연	מִיִּחְבָּבֵם וַיִּשְׁמַר אֱלֹהֵי יִיחָבְוֹנָי חַסְדֵי יְהוָה:	(43)